

서울시, 3高에 지친 소상공인 돕는다... 내년 5356억 투입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중·저신용자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로 애로 해소

서울시가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한다. 또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간편결제시 서울페이 표준 규약(QR)을 사용토록 민간과 협력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서 좋은 시절이 오나 했더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가 발목을 잡고 었던 데 댈친 격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 경제의 싹틔움이자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짐과 고민을 서울시가 조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나마 덜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 5356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 보탬 프

젝트'는 자금 보탬, 매출 보탬, 공정 보탬, 새길 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줄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35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한다.

시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 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줄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덜 계획이다. 시는 수수료가 1~2%로 낮은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가맹점을 늘리는 동시에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처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힐 방침이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쓸 수 있었던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꾸주는 '동행 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5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도 서울사랑상품권을 2948억원어치 발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결제 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알리·라인페이 등 간편결제사에서 서울페이 결제 QR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 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매입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본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시는 강조했다.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걸어나갈 새길에 힘을 신기 위해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전문가를 붙여 행정 절차 안내, 폐업 소요 비용 지원 등의 도움을 준다. 폐업 후 직장을 구하길 원하는 이들에겐 취업 상담과 함께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서울일자리센터, 서울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행해 소상공인 사업체 9만 7385개, 전통시장 185개를 대대적으로 지원, 연간 2조 1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공대학, 내년 9월부터 계약학과 운영 가능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예술·미용 등 특화분야 강화 기대감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전문대학처럼 기업들과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은 물론 산학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산학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이다. 현재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 3곳이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르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우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

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일반 대학은 지난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파주시, GTX-A 개통 발맞춰 버스노선 개편

내달 1일, 3개 신규노선 신설

파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에 발맞춰 버스 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GTX 운영중양역과 주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GTX 운영중양역까지의 도착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12월 1일부터 신설되는 3개의 신규노선은 심학산로 개통 전까지 임시노선으로 운행된다.

▲070A/B 노선: 경의중앙선 운영역을 기점으로 신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으

로, 시계방향과 역방향 각각 6대씩 투입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자정까지 운행된다.

▲072번 노선: 금촌역에서 출발해 파주병원과 금릉역을 거쳐 GTX 운영중양역으로 연결된다. 6대가 투입되며,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80번 노선: 운영신도시와 대화역을 연결하며, 주요 지역인 초롱꽃마을과 해솔마을을 경유해 GTX 운영중양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총 7대가 출퇴근 시간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1시에 교하차고지에서 출발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도입

오는 30일부터 가능... 이용범위도 확대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사용이 가능하고, 고양·과천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의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동카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총 8개사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IBK기업)는 추후 출시할 계획이다.

사용 구간은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서울 지역 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확대된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을 비롯해 이달 30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부터는 고양·과천 구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후불 기동카는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김현정 기자

해돋이 / 07:24 | 해질 / 17:15

오늘의 날씨

11월 27일(수)
 음력 : 10월 27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3, 동두천 -3/3, 가평 -2/2, 파주 -3/3, 서울 1/3, 양평 -1/3, 용인 3/4, 평택 1/5, 인천 2/5, 수원 3/4, 백령도 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특검,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 /사진 뉴시스

▲美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겨냥... "전기차 보조금 우리가 주겠다"

▲일 정부 "이쿠이나 정무관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 매우 유감"

▲우크라, '중진 추진' 트럼프에 자원 등 경제적 이익 앞세운 호소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 열고 휴전 안 승인 여부 결정 /사진 뉴시스

▲머스크 "F-35 비싸고 조종사만 죽여... 공군 전력 드론 전환 추진할 때"